

promylife

(프로미라이프)는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동부화재 PA(Prime Agent)가 우수 고객님께 드리는 생활 정보지입니다.

2016. 여름호 vol.34



동부화재는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www.idongbu.com
계약·사고접수 상담 1588.0100
TM 전용상품 상담 1566.0100
보험계약대출·신용대출 상담 1544.0100

여름 휴가를 위한
보험활용 Tip과 이슈 재테크



Membership magazine
동부화재가 드리는 우수고객을 위한 생활정보지

CONTENTS

- Special Theme** 04 **즐거운 휴식** · 1 두근두근 다가오는 여름 휴가, 나만의 휴가 키워드
08 **즐거운 휴식** · 2 떠날 여유가 없다고요? 국내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12 **즐거운 휴식** · 3 여행의 시작은 건강 챙기는 것부터
14 **해외여행 알뜰살뜰 다녀오는 법** 알뜰여행 비결? 발품 팔고 손품 파세요
16 **마음우체통**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_ 마음우체통
- +Economic** 18 **이슈 재테크** 10% 추가 하락 시 살아남는 법
22 **투자 Insight** 투자심리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
24 **실전 재테크** 휴가철, 우리 집 지출 온도 낮추기
- +Promy** 28 **Insurance** 가뭄한 휴가를 위한 보험 활용 Tip
32 **Know-How Do-How**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부탁해
34 **Promy Tip** 동부화재 한방애(愛) 건강보험
- News** 38 **동부화재, 미래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금융제안 공모전' 후원**



발행일 2016년 6월 3일(통권 34호)·비매품

발행인 김장남 편집인 김영민 발행처 동부화재 홍보팀 02.3011.321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기획·디자인 (주)이코노믹리뷰 02.6321.3040 인쇄 강원일보사 02.733.7228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프리미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 You

휴식이 있는 여름 동부화재와 함께 하세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름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해 동부화재가 함께 합니다.
여행지에서 혹은 오가는 길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동부화재가 고객님의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가족사랑의 시작은 동부화재입니다.

for you

from

 동부화재

두근두근 다가오는 여름 휴가 나만의 휴가 키워드

한여름 밤의 꿈처럼 쏠살같이 지나가는 여름 휴가.

올해는 나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알차고 만족스러운 여름 휴가를 계획해보자.
연령별 특성에 맞춘 여행 콘셉트와 여행지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도 제안한다.

글 · 손지혜 기자

20대, 친구, 연인, 배낭여행, 문화탐방

그 어떤 세대보다 여행 요소의 제한이 적은 20대는 그야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무한한 체력과 정보 검색 능력을 심분 활용한다면 배낭여행보다 더 좋은 경험이 없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친구와 함께 지리산 종주와 제주도 여행 등의 국내 여행부터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로 떠나보자. 각국에서 자유와 즐거움을 찾아 떠난 온 또래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는 재미가 여행 곳곳에 숨어있고, 퇴약별 아래에서 땀과 함께 나눈 웃음과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 함께 즐긴 음악은 평생 추억할 수 있는 선물이 된다. 단, 배낭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 연락처를 확보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안부를 보내도록 하자. 또 각 나라별 출국 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잊지 말고, 여행 중에는 여권과 항공권을 매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약 일주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는 직장인이거나 연인과 함께 강원도나 부산 등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가까운 일본으로 맛기행을 떠나도 좋겠다. 오사카와 오키나와, 도쿄는 20대 연인들이 꾸준히 즐겨 찾는 여행지이다. 또

직장생활로 평소에 즐길 시간이 없었던 음악회나 영화, 뮤지컬, 연극 등을 몰아 보면서 다양한 감동의 시간에 흠뻑 젖어보는 것도 색다른 휴가 경험이 될 것이다.

30대, 가족, 아이, 휴양지, 힐링

작년 한 해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의 가장 큰 목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가 46.1%로 가장 컸고, '스트레스 해소가 뒤를 이었다. 30대는 주로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세대로 육아와 직장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누적된 연령대이기도 하다. 또 크고 작은 나들이와 여행을 즐기면서도 여행하기에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요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아이들을 위해 무작정 비지땀을 흘리기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그동안 평일이면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열심히 놀아준 '아빠, 엄마'도 여름 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다.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라면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느긋하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떠나자. 괄목 사이판은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비행시간이 길지 않으면서 이국적인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이다. 서울보다 더 작은 크기인 괄목은 잔잔한 해변과 고운 모래로 둘러싸여 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동남아권의 나라들에 비해 음식이 다양하고 식당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를 동반하기에 좋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파란 하늘,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동동 떠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인피니티풀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면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씻은 듯이 날아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특히 사이판의 마하가나섬은 자연 그대로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가진 투명한 바닷물에 눈을 땔 수 없다. 괄목 사이판은 전자여권 보유 시 90일까지, 일반여권은 45일까지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 후 30일 동안은 한국 면허증 소지만으로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

40대, 다시 청춘, 유럽 기행, 캠핑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이 대부분인 40대는 어떤 생애 주기보다 여행하기에 좋다. 자녀들은 키만큼 생각도 자라서 함께 여행하며 지식과 감성을 공유하기에 훌륭한 파트너이고, 자녀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부모는 다시금 젊고 활기찬 기분으로 여행할 수 있다. 호기심이 폭발하고 감수성이 충만한 이 시기의 가족에게는 유럽 기행이 더할 나위 없다. 그중에서도 서유럽과 남유럽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의 거리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책에서만 보아오던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문화유적들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럽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은 많은 시간과 큰 규모의 여행경비를 할애하는 선택인 만큼 꼼꼼히 준비할수록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다. 최대 1년에서 최소 6개월 이전부터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여 경비를 아끼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을 정확히 정해 헤매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유럽 축구 관람, 각종 축제 참여, 명문대학 캠퍼스투어 등 가족만의 테마를 가지고 떠난다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긴 비행시간은 물론이며 여러 나라를 걸쳐 여행하기에 체력 관리가 여행의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필요한 상비약을 든든히 챙길 것을 권장한다.

50대, 60대, 3대가 함께 가는 여행, 제주도, 독채 펜션

손자 손녀를 둔 5~60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곳이 어떤 화려한 여행지보다 더 즐겁고 소중한다.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3대 여행인 만큼 지나치게 먼 여행지는 오히려 독이 되므로, 제주도만큼 좋은 곳이 없겠다. 특히 요즘 제주도에선 기존 제주도민이 살던 집을 펜션 형태로 개조하여 집 전체는 물론 마당까지 온 가족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독채 펜션이나 세컨 하우스 숙박 시설이 유행인데, 대가족이 편안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무척 훌륭하다. 대부분 시설들이 부티크 호텔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연출도 빠짐이 없다. 또 삼시 세끼를 밖에서 식사 해결을 해야 하는 제주도에서 하루 한 끼쯤은 가족이 느긋하게 바비큐를 즐기거나 부담 없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천한다. 여느 해외 휴양지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제주도는 바다빛이 아름다운 협재해변과 카페거리로 유명한 월정리해변, 우도의 서빈백사 등 해수욕장부터 비자림과 절물자연휴양림, 한라산 존자암 등 푸른 숲 아래 흠길을 밟는 코스까지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날로 개발되는 관광지야 워낙 많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제주의 구석구석을 보기보다는, 몇몇 포인트를 지정하여 여유롭게 즐기도록 하자.

이 밖에도 자녀를 막 독립시키거나 결혼시킨 부부는 다시 둘만의 여행을 계획해보자. 이 시기의 부부는 중국이나 터키, 베트남 등으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것도 좋지만 부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신혼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여행지를 고르고 계획을 짜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것이다. 아웃도어룩을 입고 크로스 백을 두른 채로 천편일률적인 패키지 여행길에 오르기도는 타히티나 칸쿤, 하와이에서 멋지게 해변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머리끝이 짜릿해질지도 모른다.

떠날 여유가 없다고요? 국내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해외여행을 마음먹는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이 버리고 별려서 간다.
그럼에도 떠나지 못했다면 국내에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세계 각지 못지않은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 국내에 여럿 있다.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야?”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날 것이다.

글 · 이은정 기자



TRAVEL 1

어린왕자의 꿈이 느껴지는 곳
경기도 가평 **쁘띠프랑스**



쁘띠프랑스는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주의 보석으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 도빌(Deauville)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듯한 곳이다. 프랑스 전통 가옥과 인형 외에 오르골전시관, 골동품전시관, 생텍쥐페리기념관 등에서 프랑스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꽃과 별, 그리고 어린왕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만큼 마을 곳곳에서 <어린왕자>의 그림과 조각품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색적이다. 때문에 이곳은 프랑스 생텍쥐페리 재단으로부터 어린왕자 테마파크 공식라이선스를 받았다.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베토벤 바이러스>, <시크릿 가든> 등에 나오며 더 유명해졌다. 이곳에서 공연 관람을 빼먹으면 섭섭하다. 공연 대부분이 무료인데, 특히 오르골 시연과 마리오네트 공연, 손인형극 등을 꼭 챙겨보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는 어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주차는 무료다.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문의 : www.ptcamp.com / 031-584-8200

TRAVEL 2

숲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
강원도 춘천 **제이드가든**



강원도 춘천 제이드가든은 한화호텔&리조트가 6년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잘 가꾼 유럽풍 정원은 갈은 수목원이다. 드라이가든, 웨딩가든, 이끼원, 로도덴드론가든 등 총 26곳의 분원 안에 꽃과 나무 3,000여 종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특히 로도덴드론가든은 200종에 달하는 세계 각지의 만병초들이 가득하다. 각각색의 양치식물과 노루오줌 등이 만병초들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그려낸다. 계곡 지형을 그대로 살린 것 또한 이곳의 강점이다. 낙엽송과 돌무더기 등 우거진 산림을 두고 그 속에 수수하고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꽃을 심어 아름다움을 살렸다. 이곳을 산책하고 싶다면 느긋하게 돌아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숍, 피크닉장이 있어 가족과 함께 오기에 좋다. 경춘선 굴봉산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입장료는 어른 8,500원, 중고생 6,500원, 어린이 5,500원.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문의 : www.jadegarden.kr / 033-260-8300

TRAVEL 3

이국적 풍취 가득한 지중해마을
충남 아산 블루크리스탈 빌리지



충남 아산 블루크리스탈 빌리지는 삼성디스플레이 시티 조성으로 이전해야 했던 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조성한 또 다른 마을이다. 마을의 주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은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풍으로, 남동쪽은 그리스 에게해의 화산섬 산토리니를 모델로 꾸몄다. 남서쪽은 붉은 지붕의 성곽 형식이 두드러지고, 남동쪽은 원형의 파란 지붕과 하얀 벽이 아름답다. 마을은 총 66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대개 1층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로드숍이 있고 2층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3층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다. 이국적인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다 보면 마치 유럽의 시골 마을에 온 듯하다. 전체를 둘러보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 아쉽다. 다만, 밤에는 마을 곳곳에 설치돼 있는 전등 불빛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다.

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55-7
문의: 041-547-2246

TRAVEL 4

역사와 낭만이 숨 쉬는 작은 독일
경남 남해 독일마을



경남 남해 독일마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교포들이 돌아와 정착한 곳이다. 이들이 독일에서 가져온 건축자재로 독일 전통양식의 주택을 지었다. 주택은 해안 길 언덕에 웅기증기 모여 있으며 선명한 주황색 지붕, 하얀색 벽, 예쁜 창문, 아름다운 정원 등 독일의 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풍광이 인상적이다. 이곳의 또 다른 즐거움은 독일 정통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10월에는 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진행하므로 이때 들러도 좋다. 마을 초입에 있는 파독전시관도 빠뜨리면 섭섭하다.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삶과 업을 기리기 위한 책과 사진, 물건을 접할 수 있다. TV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재밌게 봤다면 극 중 철수네 집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64-7
문의: 남해독일마을.com / 055-867-7783, 1588-3415

TRAVEL 5

바다 한가운데 식물의 낙원
거제 외도 보타니아



거제 외도 보타니아는 깨끗하고 푸른 남해바다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의 해상식물원이다. 각종 야자수 잎과 선인장, 희귀 아열대 식물 740여 종을 볼 수 있는데 다 일 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다. 특히 거대한 천연 동백 숲은 그야말로 인상적이다. 전망대, 조각공원, 야외음악당, 휴게시설은 물론,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공룡굴과 공룡바위, 공룡발자국이 있고 전천후 낚시터도 갖췄다. 구조라·와현·해금강·도장포·장승포항 등 5곳의 유람선터미널에서 수시로 유람선을 운행하는데, 돌아갈 때에도 출발한 곳의 유람선을 이용해야 한다. 유람선 시간 때문에 섬 탐방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제약하는데 비너스가든, 천국의 계단 등 12가지 테마를 둘러보기에는 빠듯하다. 입장료는 어른 1만 1,000원, 학생 8,000원, 어린이 5,000원.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외도길 17
문의: www.oedobotania.com / 055-681-4541

TRAVEL 6

물의 도시 베니스의 낭만을 고스란히
제주도 베니스랜드



제주도 베니스랜드는 곤돌라를 타고 베니스 운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700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따라 노를 저으면, 카니발축제나 '베니스의 상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니스에 와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23개의 테마정원과 카페 플로리안, 산마르코 광장 등 다양한 공간과 함께, 전 세계 오지에서 수집한 희귀한 유물과 민속품을 볼 수 있는 세계오지박물관, 베네치아갤러리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세계오지박물관 전시물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오세아니아까지 9개의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이탈리아에서 수집한 100여 종의 가면을 직접 써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좋다. 곤돌라 등의 체험과 더불어 곳곳을 둘러보는데 1시간 30분 남짓 걸린다. 입장료는 성인 1만 2,000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000원. 곤돌라 이용요금은 별도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문의: theveniceland.com / 064-784-6565

여행의 시작은 건강 챙기는 것부터



벼르고 벌렸던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건강 챙기이다.

여행 떠나기 4~6주 전에 병원을 방문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방문할 여행지의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비상약품을 미리 챙겨야 한다.

글 · 이은정 기자 도움말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은 낯선 여행지로 떠나는 것인 만큼,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낯선 여행지에서 몸이 아프거나 자칫 풍토병이라도 걸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 여행지의 풍토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해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긴 옷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사모아 등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발열, 발진, 두통, 눈 충혈,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 백신이나 예방약이 따로 없으므로 곤충 기피제를 이용하고 긴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황열



10일 전에 예방접종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로 떠날 계획이라면 황열 예방접종이 필수다. 황열은 사망률이 20% 이상일 정도로 치명적이다.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떠나기 10일 전에는 접종해야 한다. 특히 입국 시 여행자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기록한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여행지에서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안정적인고 효과적인 백신이라 한 번 접종하면 10년 동안 면역력이 유지된다. 황열 백신은 전국 13개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접종하면 된다.

말라리아



2주 전에 예방약 복용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중해 연안 등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말라리아에 주의해야 한다. 바 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가장 광범위한 질병임에도 예방 백신이 따로 없다. 대신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 여행 떠나기 최소 2주 전에 약을 먹기 시작해 여행 내내 먹어야 한다. 귀국한 뒤에도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말라리아를 없애려면 4주 동안 복용해야 한다.

뎅기열



백신·예방약 없어 긴 옷 입는 게 안전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여행지라면 뎅기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뎅기열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4년 해외 질병 발생자는 총 383명, 이 중 163명이 뎅기열에 감염됐다. 특히 백신이나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곤충기피제 등을 준비해 사용하는 것도 좋다.

메르스



중등은 현재진행형, 개인위생 철저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지역

이나 일부 유럽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메르스의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여전히 기승이다. 사우디에서는 올해 5월까지 100명 남짓한 환자가 발생했고 아랍에미리트나 오만, 카타르 등 주변국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왔다. 메르스는 보통 3~9월에 유행하므로 중동 지역에 체류하거나 낙타시장 또는 농장을 방문, 낙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로 예방법이 없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다.

이밖에 아시아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중동아시아는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도 받는 게 안전하다. 아이와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일본뇌염 백신을 맞기를 권한다. 처음 접종인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맞아야 하고 추가 접종은 6세, 12세에 하는데, 최소 여행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여행 전에 풍토병 예방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여행지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충분히 가열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 음료수도 안전하게 검증된 것을 먹고 야채, 과일은 반드시 씻어서 껍질을 벗겨먹는 게 좋다. 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이나 실외에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는다.

알뜰여행 비결? 발품 팔고 손품 파세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은 역시 비용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정답은 없고, 해법은 있다. 여행 계획을 일찍 세우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 여행사, 최저가 비교 사이트, 소셜커머스, 여행커뮤니티 등을 자주 드나들며 부지런히 손품을 팔고 수시로 발품을 팔아야 알뜰한 정보를 얻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버르고 별렀던 해외여행, 비용 고민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알뜰여행수칙을 메모해보자. 글·이은정 기자



항공료,

얼리버드·땡처리·경유노선이 저렴하다

여행 경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료. 수시로 최저가 항공권을 찾아보는 게 답이다. 가령, 스마트폰 항공권 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수시로 검색한다. 항공료는 저가항공사를 이용하거나, 대형항공사의 경우 얼리버드 할인 항공권을 활용하는 게 저렴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국 19주 전에 구입할 경우 가장 저렴했다. 이는 항공사들이 얼리버드 할인 항공권을 판매하는 시점과 동일하다. 이와 반대로 출발 직전에 싸게 나오는 항공권을 사는 방법도 있다. 예약한 항공권을 갑자기 취소해 생기는 이른바, 땡처리 항공권이다. 이런 경우, 일반 티켓보다 50~70%까지 저렴하다. 이밖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유노선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숙박료,

공유하면 줄일 수 있다

호텔을 이용한다면, 보통 여행 한 달 전에 호텔이 사전예약 특가로 제공하는 숙박권을 알아보면 저렴하다. 유명 호텔의 경우 최저가보상제도를 운영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공식 호텔사이트에서 예약한 다음, 같은 조건인데 더 싸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 호텔 측에 알리면 고객이 찾은 숙박료에 맞춰주기 때문이다. 굳이 호텔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숙박 공유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숙박 공유는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기간과 가격을 제시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공유 정보는 에어비앤비나 홈익스체인지 등의 숙박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다. 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집주인 연락처, 집의 사진 등이 올라와 있으므로 여행 기간과 여행지,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한다.



여행지 물가를 먼저 따져라

여행 경비는 대체로 물가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숙소, 먹거리, 이동수단, 현지 관광료 등은 여행 기간에 비례하고 물가가 비싸면 아무리 비행기 값을 아꼈다 하더라도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 여행지를 결정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의 물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행 물가는 대략 하루 숙박비, 택시비, 한 끼 식비 등의 동일 조건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비슷한 분위기의 휴양지라면 현지 물가를 비교해 가능하면 저렴한 곳으로 여행한다.



신용카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하거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실제 가격의 3~8%를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고 환전수수료도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낫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신용카드가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어떤 해외 브랜드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2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환전, 주거래은행 이용하고 환전이벤트 활용하라

환전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체로 공항에 있는 환전소는 은행보다 비싸다. 직접 환전한다면 주거래은행을 포함해 2~3곳의 기준 환율과 환전 이벤트 여부를 확인하고 환전하면 된다. 주거래은행의 경우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 휴가철이 다가오면 특수를 노린 은행들이 대대적인 환전 이벤트를 벌이는데, 최대 70%까지 환전수수료를 깎아주거나 해외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주기도 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환전하는 사이버 환전을 이용하면 더 저렴할 수 있다. 환전할 때에는 여행지의 화폐로 바로 환전하는 방법과 원화를 달러로 환전 후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로밍,

여럿이 함께 혹은 해외유심을 이용하자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로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동통신사들은 하루 9,000원~1만 원 남짓한 요금제로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를 도입 운영하는데,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면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 반면, 로밍하지 않고 해외유심을 구입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해외 유심을 신청하고 공항에서 받아 사용하면 된다. 대체로 이동통신사 데이터 정액제보다 저렴하다. 가령, 미국 유심은 3만 4,900원으로 한 달 동안 47기를 이용할 수 있고, 유럽의 경우 유심 하나로 데이터를 25기가 이용할 수 있는 쓰리유심이 4만 9,900원이다. 한편,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를 사전에 차단해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Special Theme

마음우체통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

가족사랑 마음우체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내보세요.
동부화재 '가족사랑 마음우체통'은 고객님의 가족사랑 메시지를 E-mail,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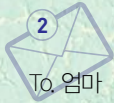
To 사랑하는 두 딸에게

앞으로 사랑 표현 많이 할게~

사랑하는 우리 두 딸~ 아빠가 항상 미안하기도 안쓰럽기도 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가들~ 이런 마음을 다 표현도 전하지도 못하는 무뚝뚝한 아빠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줘~^^ 아빠가 많이 노력하고 표현할게~ 이제는 정말 친구처럼 뽀뽀도 포옹도 그리고 아끼는 마음도 모두 모두 표현할게 ~ 항상 사랑하고 너희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해~~~~♥

From. 뽕뽕아빠



To.엄마

아직도 꿈꾸는 소녀 같은 엄마에게.

엄마~♥ 예전에는 편지도 많이 썼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까? 사춘기 감성도 아닌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당연한 듯 항상 받기만 하면서도 엄마에게 투덜투덜 대고 심지어 엄마의 전화를 귀찮아했던... 스스로 돌아봐도 참 나쁘고 못한 딸이네요. 이제는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딸이 될게요.

고맙습니다.

From. 딸.민정



To 남편 칭호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당신의 부스럭 소리에 놀라 일어나면 일어나지 말고 더 자라고 토닥거려준 후, 조용히 문 열고 나가는 당신에게 감동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워낙 이른 출근 시간 탓에 본인 소리에 마누라 잠 설칠까봐 신경쓰는 당신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온 시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마음을 전했는지 생각해봤는데 참 많이 모자란 것 같네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영원히~♡

From. 아내, 혜진



To.아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뿐인 딸 슬이예요. 시집가서도 투닥투닥 부부싸움 해서 속상하게 해드리고... 엄마는 신경을 쓰면서도 아빠는 남자라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던 것 같아 시집간 이후로 늘 아빠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아려요. 그런데도 왜 막상 아빠 보면 술 마시지 말라 하고 담배 좀 그만 피우시라 하고 잔소리만 하게 되는지... 평생 일만 하시고 외로우셨을 울 아빠 노고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죄송하고 감사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From. 이슬



코끝 찡한 '내가 먼저 뮤직애니'보고, 가족사랑을 먼저 표현하세요

다양한 캠페인을 선보여 온 동부화재가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가족사랑 사이트(www.idongbu-promy.com / 모바일 (m.idongbu-promy.com))에는 감동적인 '내가 먼저 뮤직애니'가 공개되었습니다. 라인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된 이 뮤직애니는 거리가 멀어진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표현하고 다가서자는 노랫말과 함께 어색한 사이의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그리고 부부 간에 작은 용기를 내어 먼저 표현한 사랑이 큰 가족사랑을 만들어간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뮤직애니와 스토리북, 프로모션 등 가족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가족사랑 사이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방법 : 동부화재 가족사랑 사이트(<http://idongbu-promy.com>)

10% 주가 하락 시 살아남는 법

주가 급락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손절매라는 카드를 꺼내기 전,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점검해 볼 때다.

글 · 구영대 (주)National Financial Planning-NFP 금융센터장

전 세계 주식시장의 등락은 증권시장이 생기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폭등과 폭락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낙관론이 팽배할 때 쓰나미같이 닥쳐와서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반대로 주식시장의 폭등은 비판론이 팽배하고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때 반등의 신호를 보이며 나타나게 된다.

좀 더 관찰해보면 주식시장이 바닥권에서 어느 순간 조금씩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세를 불신하고, 시장 내에 남아 있는 리스크(tale risk)에 초점을 맞춘다. 뉴스와 각종 보고서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주류가 된다. 왜냐하면 다들 심리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물론 근거가 있겠지만)을 말했다고는 자칫 실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상승세를 보이면 저항선을 정하고, 언제든 수익실현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손절매라는 변명 하에 주식을 정리한다.

주식시장이 이미 과거 대비 높게 폭등하고 있을 시장 분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다 보니 주식투자에 대한 수요에 가속도가 붙게 되고, 그에 따라 주가가치는 고평가되어 과열양상을 보인다. 쉽게 말해 주식투자에 대해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누구나 인정하고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면 주식시장에 거품이 일기 시

작하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의 마음 속에 그 어떤 때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들이 가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발표되는 수많은 보고서가 끝없는 낙관론으로 줄지어 나타나면,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좀 더 길게 상승한 후 그 다음 순서로 시장의 자동정화과정에 의해 다시 급락세를 연출하기 시작한다.

주식시장은 바닥권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가속적으로 주식을 구매하며, 한번 잡힌 이러한 분위기는 주가하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주식을 던지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때는 지지선(주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하는 지점)이란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에 비관론적인 관점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다시 위로 방향을 돌린다.

손실이 확대될수록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참기 어려워하게 되는데, 그때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

사실 듣게 되는 대부분의 얘기는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든지, 지금보다 전에 팔았어야 했다는 것 등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확신을 주는 내용이다. 즉 주변 지인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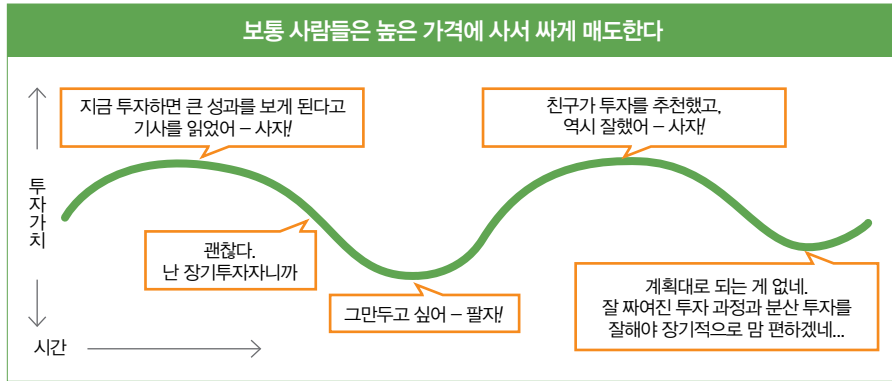
일반인들의 저축 및 투자성향은 철저히 '양떼효과(herding effect)'를 따른다. 이는 군집(herding) 현상을 이르는 말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다 첫 번째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모두 떨어지는 양떼처럼, 대부분의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우르르 무리지어 행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투자자의 마음, 투심을 끊임없이 일회일비하게 만들어 놓고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주식투자를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



1. 공포와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자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의 변동성은 진폭에 차이는 있겠지만, 반복되는 사계절과 같고 역사와 같다. 즉 시장 변동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혹시 과거에 주식을 투자해서, 금 투자를 해서, 원자재에 투자해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는가? 그때 손실을 났던 상품의 장기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렇다면 심리적 불안이 좋지 않은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길게



보면 매수할 때인지 매도할 때인지 보인다. 물론 이 말은 장기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주식투자의 올바른 해석은 그 기업의 장기 성장가능성과 그 기업이 주는 배당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제표, 기업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반대로 단기투자자는 그 회사의 성장률과 배당률 등 미래 관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갬블링(gambling)과 같이 투기를 한다. 단기투자는 전문가의 조언도, 재무목표도 무의미하다.

2.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유지하자 시장 변동성 국면과 같이 개인의 투자목표도 파도를 타면 안 된다. 미치도록 사고 싶을 때는 사서는 안 되고, 미치도록 팔고 싶을 때는 팔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미치도록 사고 싶은 상황인지, 아니면 미치도록 팔고 싶은 상황인지 살피고, 만약 두 가지도 명확하지 않다면 꾸준히 그 종목의 펀더멘탈(영업이익률, 부채 건전성, 성장동력 등)을 믿고, 도리어 주가가 흔들리고 조정받을 때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좋은 기업은 언제나 결국 빛을 보게 된다.

3. 항상 현금 비중을 20~30%는 갖고 가자 시장 상황이 좋은 나쁜든, 심리적으로 좋은 나쁜든 매수여력이 있어야 한다. 투자했던 종목에 대해 근거 있는 확신으로 시작했고, 현재도 여전하다면 1차, 2차, 3차의 가격 지지선 구간을 정해서 그 가격선에 근접했다면 매수를 나눠서 시작하자. 월가의 영웅인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이 하

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치는 주식시장을 빠져 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존 템플턴은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라고 말했다. 감정적 동요에 순응하게 되면, 남는 것은 손실확정과 기회상실뿐이다.

4. 쇼핑리스트를 준비하자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이 폭풍우칠 때 득템하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싶은 매수 대상 리스트를 준비해두자. 즉 이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여러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업종에는 항상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다. 업종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반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있다. 쇼핑리스트는 그동안 너무 고평가되어 매수하기에 자신감이 없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고평가되어 매도 후 편입할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주식투자자들은 이러한 대안 없이 투자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유 종목 매도 후 그 다음 매수할 종목을 찾는다. 이는 이미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5. 주가 하락 시 TV를 끄자 시장 하락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투자자는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적은 온갖 부정적인 뉴스의 틀 안에 갇히는 것이다. 주가의 움직임만 살펴보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찔하겠지만, 이성과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투자했던 주식, 기업의 가치평가 대비 정말 형편없이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렇지 않다면 TV 및 주변의 좋지 않은 얘기는 신경 쓰지 말자.

6. 전략을 가지고, 좋아질 날을 기대하자 시장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제로섬게임이다.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봤을 것이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기업의 이익이 계속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면 역발상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의 투자결과는 부정적이다.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투자심리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따라 등락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좋을까? 투자심리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답이 보일 수 있다.

글 · 구영대 (주) National Financial Planning-NFP 금융센터장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먹고 산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기대가 없을수록 주가는 하락한다. 또한 증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이 많을 때 주식시장은 박스장을 이룬다. 약간의 호재에 반등하고, 약간의 악재에 반락한다. 이러한 투자심리를 표현한 지수가 있다. 바로 VIX지수이다.

VIX(Volatility Index)지수는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기대지수이다. VIX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2016년 1, 2월 VIX지수는 30%가 넘었다. 연초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했을까? 수차례 이어질 미국 금리인상 공포 그로 인한 강달러 지속, 국제유가의 끝없는 하락, 중국 경제의 위기, 한국 경제의 불황 등등.

VIX지수가 올라갈수록 거의 비슷하게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즉 시장이 불안할수록 VIX지수는 올라가고 거의 동시에 주가지수는 하락을 한다.

불확실성을 극복하라

투자심리가 불안할수록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피지 못하고, 단지 두려움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게 나타난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전에 확신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 테스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 국가의 펀더멘탈을 평가할 때, 여러 지표들 중에 경제성장률을 예로 들어보면, 경제성장률이 +가 유지되는 한, 이론적으로 국가의 시가총액은 +가 된다. 하지만 주가지수는 기대심리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는지, 증가했는지에 따라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개별종목을 분석할 때도 투자지표들(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등)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근거 없는 긍정적인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 비합리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면 비합리적으로 주가는 폭락하기도 한다.

노벨상 수상자 하버트 사이먼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 사이먼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정보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관심 범위 밖에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험스러울 정도로 부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을 견딜 수가 없기에 홀로서기를 포기하고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군중심리를 따라가게 된다.



투자자가 가져야 할 투자원칙과 전술

첫째,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시장 급락 시 전체 투자금액과 투자심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매도행진일 때 패닉이 되어 대열에 합류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취하자. 즉 적절한 가격조정 시점에 오히려 매수하자. 일정 금액을 현금화하고, 가격대별로 지지선을 정하여, 주가가 그 지지선 가격까지 하락하면 그때 갖고 있던 현금으로 다시 분할해서 추가매수하자. 그렇다면 주가 반등 시 저가 매수했던 투자금액이 효과 노릇을 할 것이다.

둘째, 단편적인 사고방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곳이 미국 주식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가가 올라가리라 믿고 있다. 이때가 분산투자할 때이다.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와 자산에 투자하자. 유럽과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한 예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곳에 치우치지 않게 조심하자.

셋째,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주식 또는 투자상품을 사자. 워런 버핏으로부터 배운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주식을 사라'는 것이다.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운다면 '주식매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마라'는 것이다. 즉 모두가 동의하는 주식이나 투자 상품이 아닌 나름에 소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있는 곳에 투자하자.



휴가철, 우리 집 지출 온도 낮추기

올해도 5월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날이 많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게 마련.
시원한 냇가나 바다로 여행할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여유롭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 집 지출 온도는 급격히 올라간다.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여행하면서 지출 온도도 낮출 수 있을까?

글 · 김상현 프라이빗셋 팀장



여름이다.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자주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비교 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등을 비교할 것이 분명하다. 또 관광지에서 카드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와 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막상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나면 그다음 달 카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마련이다. 평소보다 카드 사용이 너무나 많아 지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휴가지에서는 보통 계획했던 것과 달리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휴가, 카드 결제일 이후까지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별도 통장을 마련하자

지금까지 여행비용 마련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을 계획한 비용만큼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번 여행에서 100만 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면, 주거래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아 또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이 100만 원을 새로 만든 통장에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하나 발급받는다. 휴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해당 체크카드로만 결제를 하면 된다. 만약 사전 예약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지출이 발생한다면, 새 통장에서 계약금만큼을 인출해 원래 통장에 넣어 놓으면 된다.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장 잔고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지출을 통제하면 무턱대고 카드를 긁어서 예상보다 높아지는 지출 온도를 끌어내릴 수 있다.



미리 만드는 여행통장

또 하나의 방법은 미리 여행을 위한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매월 이 통장에 자동이체를 한다. 가끔 여행 생각이 간절하지만 일이 많아 떠나지 못할 때는 잠시 미뤄둔 여행을 더 즐겁게 보내자는 의미로 여행통장에 일정 금액을 추가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스스로에게 여행 경비를 선물로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행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 잔고는 전액 휴가 경비로 사용한다고 정한다. 매월 월급통장에서 10만 원 씩 자동 이체한다. 1년이면 120만 원이 저절로 쌓인다. 국내 여행을 간다면 120만 원이면 매우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급여 이외에 추가 수입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10만 원을 떼어 넣어놓는다.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등의 이유로 보너스를 받게 되면 보너스의 일정 금액을 떼어 다시 여행통장에 추가 입금하는

식이다. 이처럼 여행통장을 만들고 자동이체와 함께 추가입금을 하게 되면 언제 휴가를 떠나든 지출 온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또 좋아하는 여행을 가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더 진행해 소득이 높아지거나 프로젝트를 더 맡을 수도 있다.

준비는 미리미리

여행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휴가지에서 더 편안하고 여유롭고 재미있게 보내려면 예상치 않은 지출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가격비교를 통해 숙소를 정하거나 카드 할인은 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 결국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올 여름부터는 여행 통장을 하나 만들어 지출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여행통장에 추가 입금을 하는 것은 어떨까?



휴가철, 그래도 필요한 보험은 꼭!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다. 해당 보험에 전부 가입해도 몇 만 원 정도 소액의 비용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의 사고 시에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타차특약: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다. 휴가철 여행지로의 이동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 친구 혹은 친척의 차라도 타차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해도 된다. 타차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사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몇 천 원 내외로 저렴하다.

레저보험: 휴가지에서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안전사고 확률도 높아진다. 평소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기도 하며, 평소와 다른 운동도 즐기기 때문이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간혹 홀인원이 터질 수도 있다. 홀인원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홀인원을 하면 관례상 기념품을 주거나 축하파티를 한다. 이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동부화재는 레저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도 판매한다.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에서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이를 보상한다. 또 귀중품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도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일정 부분 보상도 가능하다. 여행자보험 보험료는 몇 천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가쁜한 휴가를 위한 보험 활용 Tip

모처럼 휴가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보험 활용 방법을 정리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집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먼저다.

글 • 정아람 머니플러스 기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휴가에 대한 갈망이 뜨겁다. 두어 달 남은 휴가철을 앞두고, 주말이면 휴양지마다 주말여행객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매년 휴가철에는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 휴가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올여름, 어디로 떠나는 어떤 레저를 즐기든 다음의 세 가지 보험은 꼭 챙기자.

해외에서 보내는 휴가라면

해외로 휴가를 떠날 생각이라면, 여행을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권 만료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로, 일부 국가에서는 6개월 미만일 경우 입국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또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 어댑터와 상비약 등 준비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 해외여행자 보험은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 다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한 사망 사고나 상해와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전화 도난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장단기 여행 기간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도 2014년 기준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대폭 늘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잘 살펴야 한다. 여행자와 여행 목적을 청약서상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흑역 전쟁 지역 등을 여행하거나 여행 목적이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인 경우 또 과거 질병 여부 등은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알아두자. 특히, 여행사 등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자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해외 및 국내 실손의료비와 휴대품 손해, 범치



피해 등으로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으로 구성되는데, 무료 보험의 경우 필요한 선택계약이 없거나 보장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보내역을 확인하자. 예컨대, 의료비 수준 대비 보장금액이 적절한지를 살펴 필요하면 추가적인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게 좋다.

만약 해외에서 도난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이 입증되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자. 도난사고 시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꼭 받아놓아야 하며, 공항에서 수화물을 도난당한 경우 공항안내소에, 호텔은 호텔 프런트에 신고 후 확인증을 받아 두도록 하자. 해외여행 중 파손,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품목별로 1개당 20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장되며,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받을 수도 있다. 단, 현금과 여권은 휴대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으니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TIP

동부화재 SOS 우리말 지원서비스

해외여행 중 손해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SOS 우리말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수신자 부담으로 82-2-3140-1722(일부 국가 현지 번호 있음)로 전화하면 24시간 연중무휴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수상레저를 즐길 계획이라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만 되기는 어렵다.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예약 상황 및 휴가 일정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업무 또한 차질이 없는지 확인해둬야 한다. 또 이번 여름 야외활동을 즐기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미리 '레저보험'을 챙겨두는 게 좋겠다.

레저보험이란,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타인의 신체에 혹은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예컨대 골프보험의 경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해후유장애와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골프보다는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자신의 보험가입도 가입이지만, 사업장의 수상레저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보험이란 수상레저 기구를 타다가 상해나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기구의 파손도 책임져 준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수상레저종합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영업기간이 짧아서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일부만 보

TIP

동부화재 레저보험은?

- 내생애첫건강보험** : 사회활동이 왕성한 남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과 레저 등 다양한 위험 보장(레저활동 중 상해후유장애, 골절과 화상진단비, 김치치료비 등 특약가입시)
- 골프보험** : 골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 OUTDOOR레저보험** : 스키를 위해 집을 떠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보상하는 상품

험에 가입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도 신체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사고가 나면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배상받을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나면 사업장에 보험증권이나 담보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번 휴가 때 수상레저를 즐길 계획이라면, 사업장의 수상레저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살펴

캠핑과 낚시로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휴가철에는 온 가족이 캠핑을 떠나거나 낚시 등의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대부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므로 보험대상 운전자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의 경우 동행자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 따라서 매년 휴가철(명절 등 특정 기간)이 되면, 안전한 휴가를 위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으니 사고에 대비해두자.

보험 가입 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전 하루 전까지 가입해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TIP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라

무더위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안전한 휴가를 즐기는 방법!

동부화재	콜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내	해외	
	1588-0100	82-2-1588-0100	www.idongbu.com

캠핑, 여행 준비하고 있다면 주목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부탁해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바다나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운전도 많이 하는 계절이다. 적절한 보험에만 가입해 둔다면 여행길 사고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운전자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자.

글 · 김상현 프리임에셋 팀장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듯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에는 취약하다.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11대 중과실(신호 위반, 앞지르기, 속도위반 등) 사고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이 어려울 정도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형사상,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특약 가입 시 보상하는 상품이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구속영장에 의한 공소, 변호사 선

임비 등도 특약 가입 시 보장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가입자 위주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방어 비용이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담보 비용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서비스도 폭넓은 상품이 좋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비용, 견인 비용,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위로금 등이 충분히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한마디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가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보상하

는 데 반해 운전자보험은 철저히 가입자 위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가입 기간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운전자도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많아졌다. 또 사고 발생 시 보장 혜택을 본 가입자도 증가하면서 그만큼 운전자보험에 원하는 혜택도 다양해졌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은 여러 조건의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모든 보험은 보장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질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보장 이외에 또 하나 따져봐야 할 게 있다. 가입 기간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만기다. 1년마다 재가입하는 식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만기 혹은 80세·100세 만기 상품도 있다.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짧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80세 이상 가입해서 좋을 게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운전을 별로 하지 않는다. 100세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운전 가능 기간을 고려해 가입하면 된다. 또한 최근 자동차 관련 뉴스를 보면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시기가 코앞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 10년 후 아예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만 타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운전자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하다. 10년 후 갱신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TIP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은 만 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특약),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치료 및 정신적 치료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교통상해에 대한 집중 보장이 강화되어, 운전자에게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최적의 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새로 개발된 납입지원특약 가입 시, 발생사유 요건 충족에 따라 기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업계 최초 양한방보험 한방애(愛) 건강보험

양한방 모두 커버가 가능한 건강보험이 업계 최초로 출시되었다.

동부화재 한방애(愛) 건강보험이 그것.

그동안 비급여 부분이 많아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도

망설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한 전천후 건강보험이다.

자료제공 · 동부화재 상품전략파트

얼마 전,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승부가 있었다.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다. 인간의 승리를 예상하고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끈 점은 단순히 컴퓨터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융합과학'이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만의 산물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분야의 학문이 결합하여 탄생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를 '융합사회'라고 한다. 과거엔 한 개 분야에서 최고의 발전을 추구했다면, 현재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분야가 서로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알파고처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융합'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의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 예전 같으면 동네 약국만 찾았을 텐데, 요즘은 일단 양방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CT나 MRI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기력 회복과 혈액 순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한의원 진료를 병행하곤 한다. 양방의 치료보다는 한방치료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융합 의학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방치료 비급여 부분을 커버

서양의학이라 불리는 현대 양방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증상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에는 무슨 약, 당뇨에는 무슨 약 이라는 식의 처방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 특성 보다는,



질병과 증상에 집중하고, 동일한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똑 같은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 요소인, 체력, 체질, 환경, 심리적 상태, 면역력과 약물대사능력 등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인지, 한방치료를 대한 보험 상품 니즈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방치료를 받고 싶으나, 비급여 비중이 높아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이 이 부분을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동부화재는 최근, 선제적인 전략으로 '업계 최초' 의 양한방보험 상품인 '한방애(愛) 건강보험'을 출시하였다. 한방치료도 상해와 질병의 급여부분의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정작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은 제외 돼 있어, 고객을 위한 보장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방애(愛) 건강보험”은 고객들의 니즈가 특히 강한 암, 뇌, 심장 등의 3대질병, 상해·질병수술, 골절·자동차부상 등의 한방치료를 보장(특약 가입 시)할 수 있으며, 한방 진료의 고유 치료법인 침약, 약침, 물리치료 등의 보장이 '100세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보험을 통해 '암한방치료비' 특약을 가입했다면, 병원에서 암 진단 받은 후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치료에 대해, 3번의 침약, 5번의 약침, 5번의 물리치료(추나요법 포함)를 각각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업계최초로 '자동차사고 한방치료비'특약을 통해 보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한방애(愛) 건강보험으로 사고와 질병 대비

한방의 영역은 그 동안 고객의 니즈에 비해 안타깝게도 보험으로써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한방치료의 특성상 정형화 되지 않은 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이 아니라, 몸 전체순환을 안정화 시키는 한약재를 처방하는 방식이고, 의사 마다 처방이 다 다르며, 약재와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돼 왔다. 하지만 양방과의 융합을 이용하여, 한방진료를 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한방(愛)에 건강보험은 매우 의미 있는 보험이 아닐 수 없다. 여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도 할 수 없었던 기발한 상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업계 또한 우후죽순 한방보험을 출시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 최초는 물론이고, 보험업권 최고의 가입금액을 자랑하는 원조 100세 한방보험을 통해 한방과 양방, 한방애로 한방에 사고와 질병을 대비해 두는 건 어떨까?

명품 한방보험 동부화재 한방애(愛)

동부화재 한방애(愛) 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특약), 3대 질병은 물론, 상해·질병수술, 골절·자동차부상 발생 후 한방치료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업계 최초 출시는 물론, 최고의 보상 범위와 자동차 부상에 대한 특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추나요법 등 물리요법에 대해 5회의 정액보장이 가능한 점, 1일 복수의 치료도 보장이 가능한 점 등은 이미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명품 한방보험으로 정평이 나았다.

동부화재, 미래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금융제안 공모전' 후원



동부화재는 동부문화재단이 주최한 '2016년 제6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에 후원했다. 지난 5월 2일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응모된 논문 200여편 중 '한국형 의무 풍수해보험연구: 민간 협동 모델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건국대 최수범 씨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부화재는 대학생들이 금융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금융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매년

시행하는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을 비롯한 금융 분야 5개 사 CEO, 심사위원으로 서울대학교 석승훈 교수와 CFA한국협회 조윤남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본상 9팀 중 5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중 2팀)은 8월 말에 열흘간 미국 뉴욕과 보스턴 등지로 '글로벌 금융탐방'을 떠날 예정이다. 장려상 4팀 및 추가로 선정된 가작 5팀은 6월 말에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으로 '글로벌 금융탐방(홍콩)'을 떠난다.

'글로벌 금융탐방'은 월가투어와 Ivy대학 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을 방문한다. '글로벌 금융탐방'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금융전문가로 성장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동부화재 추천상품 6

- 내생에 든든 종합보험** 100세 시점(보통약관 보장부분 보험만기)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환급금 지급 가능.
- 참좋은운전자보험** 혹시 모르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다양한 신체위험 및 비용손해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제공.
- 우리아이 첫 보험** 아토피나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은 물론, 치아 치료 · 시력 이상 · 임신 출산 위험 등 자녀와 관련된 각종 위험을 종합 보장.
- 가족사랑간병보험** 간병 진단비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등으로 장수리스크 시대를 준비 가능.
- 2060건강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부담스러운 치과치료비를 제공.
- New화재플러스보장보험**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배상책임,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

※ 상품별 보장내용은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됩니다.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시작!

운전자보험도 역시 동부화재가 좋습니다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선보인 동부화재 - 믿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명성은 하루이튿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1604

차를 생각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족을 생각한다면 운전자보험! 동부화재와 함께 가족의 행복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세요!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가결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대상금융상품의 해당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연금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제2015-3938호(2015.12.28))